

Be wood Be life - 우드플라넛 03 2016

WOOD

P L A N E T

www.woodplanet.co.kr

FLAGSHIP STORE

0914

정가 12000원



ISSN 1598-2294
140003
1598-2294-1801

• 설명이 필요 없는

We do wood

앤더스 홀름 옌센(Anders Holme Jensen)이 사업을 총괄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세바스찬 요르겐센(Sebastian Jørgensen)이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는 덴마크의 가구&디자인 회사 위 두 우드에서는 오로지 대나무로만 제품을 만든다. 보통 가구재로 사용되는 애쉬나 오크를 벌채하려면 4~80년이 걸리는데 대나무는 4년이면 충분하다는 게 그 이유다. 이들이 생각하기에 대나무는 소비자들의 가구 소비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삼림 파괴도 막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재료이다. 환경 파괴 없이 만든 가구가 브랜드의 근본이 되는 콘셉트이므로 일단은 대나무 외에 다른 나무를 다루볼 생각은 없다. 대나무를 다루는 건 오크를 다루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, 섬유질이 단단해 다루기가 더 어려운 편이다. 좋은 가구는 많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. 그래서 이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